

# 광주시, '호우·폭염·물놀이·산사태' 4개 재난사고 중점관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안전관리 활동  
9월말까지 폭염특별대책기간 지정  
물놀이 가능 구역 비상근무반 편성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가 7월에 중점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 산사태사고 등 4개 유형을 지난 4일 선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시작 시기가 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은 찬 공기 세력이 약화되고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커지면서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 7월초를 전후해서 서서히 장마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마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와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택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에선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 장소와 유사 시 연결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산사태 예방과 선제대응을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대규모 산지전용지, 임도 신설 사업지 등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과 안전관리 등도 실시중이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난 고기압으로 이상기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은 가급적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특별대책기간은 9월 말까지다.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8월 31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광산구 임곡교(황룡강) 주변 등 물놀이 가능구역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7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관리해 시민안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각종 재난행동요령등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5일부터 이틀간 펼쳐진다. 첫날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인 이공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대학교수와 법제처 등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튿날에는 예산군 덕산면 스피러스리소에서 재정분권 토론회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최규춘 기자

## “말만 시민 승마체험시설”

### 대덕승마장, 공공성 논란

개인소유 자마 비율 50% 육박  
자마회원에 밀려 일반시민 이용 ↓



대덕승마장 승마 심리치유 프로그램

일반시민들의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인 달서구 송현동 대덕승마장이 공공성을 상실, 특권층의 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덕승마장은 1993년 건립돼 대구승마협회가 위탁 관리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문제로 2009년부터 대구시설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대덕승마장에는 일반시민 감습용인 공단마 33마리, 개인소유 자마 24마리 등 총 57마리의 말이 있다. 전국 공공승마장 17곳 중 자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곳이며, 평균 자마 수는 6.4마리에 불과하다.

대덕승마장이 시민중심 체육시설이 아닌, 자마회원 중심의 체육시설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다. 게다가 자마회원의 사용료는 월 79만원에 불과해 마리당 관리비 원가인 118만여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시민이 승마장을 이용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지만, 자마회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이용해 승마를 즐길

수 있다.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험승마와 재활승마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마회원들은 1인 1마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 명의의 말을 등록하거나 차명으로 1인 2마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를 불러와 개인 불법레슨까지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자마회원 25명 전원이 222회 사용료를 연체하기도 했다.

대구시의 김지만 의원은 "대덕승마장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자마회원들의 낮은 관리비는 사회특권인사를 위한 세금낭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춘 기자

## 대구시, '중소기업 대상' 후보기업 모집

대구시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1 대구시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대구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기술 개발과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후보기업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경제부서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의 경제단체 및 기업지원기관 중 1곳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선정기업에는 중소기업대상 상장, 현판 및 깃발을 수여하며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2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지방세 세무조사유예(3년)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최규춘 기자



개장 첫날인 3일 대전해수욕장을 찾은 차량들

## 보령 대전해수욕장 개장 첫날 피서객 수만명 방문

충남 보령시 대전해수욕장 개장 첫날 전국에서 수만명이 몰렸다.

첫날인 3일 대전해수욕장으로 모여든 피서객들은 6만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서객들은 대전역과 보령종합공영터미널 및 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역소에서 발열체크와 체온스티커를 받아 손등에 붙이고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피서를 즐겼다.

이날 보령시장은 코로나19 제2검역소와 머드광장, 물놀이안전센터 방문과 피서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규춘 기자

## 영양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하천경관조성 5억, 정자교 공사 9억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도심하천 경관조성 사업 5억원, 정족리 정자교 개체공사 9억원이다.

도심하천경관조성사업의 중심지인 동부천은 영양읍을 관통하고 있는 하

천으로 경관조성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족리 정자교는 재해예방 사업이 절실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전남도, 측량기준 좌표체계 국제표준 정비

일제강점기 동경 중심 좌표체계 변환

전남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했던 일본 동경 중심의 측량기준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제표준 변환사업은 도해(圖解)지역 542만 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공부 사업량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동경원점 측지계를 측량기준으

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세계표준 좌표와 남동쪽으로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해 각종 토지 불부합을 유발했다.

전남도는 이런 편차 해소를 위해 2013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용했던 좌표체계를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 공용의 국제표준 측지계로 변환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최규춘 기자

## 대전시, 12일부터 '공공형 택시' 운행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공공형 택시'를 12일부터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매우 적은 4개 자치구 11개동의 101가구 186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개인별로 월 8회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이 콜센터(양반콜·한빛

콜·한발S콜)에 전화로 예약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시스템(DRT)으로 연계돼 배차와 운임 정산이 이뤄진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1250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시가 지원한다. /최규춘 기자

## 부산시 꿈나무 영어캠프 비대면 운영

부산시는 저소득·취약 계층 자녀들을 위한 '꿈나무 영어캠프'를 올 여름방학에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저소득·취약 계층 자녀들의 영어 구사 능력 함양을 위해 체험 중심의 '꿈나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캠프는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초등학교 3년이상부터 중3학년까지 400여명에 게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규춘 기자